

“삼라만상 담긴 돌의 매력을 아시나요”



수석·뿌리로 예술작품 만드는 장재규씨

주말마다 전국 산·바다 다니며 수집 세월호 추모 위해 안전 돌 가져 오기도 전시회 열어 여러 사람과 나누고 싶어

“수석을 잘 들여다보면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동물도 있고, 삼라만상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돌에 미쳐있었습니다. 미처다 보니 남들은 그냥 보고 지나치는 돌이 저에게는 보물이 됐습니다.”

지난 21일 방문한 장재규(71·광주시 서구 치평동)씨 자택은 입구에서부터 수석이 즐비했다. 현관 거울 앞에는 손님맞이용 하얗고 까만 돌들이 나무 받침대 위에 정갈하게 놓여있었다.

거실로 들어가자 더 많은 수석들이 눈에 들어온다. 가로 세로 2×2.5m 장식장 칸마다 2~3개씩 가지런히 놓여있다. 부엌에도 높이 1.5m 장식장 2개 있었다. 안방에도 장식장, 서재에도 장식장, 눈에 띄는 곳마다 수석이 보였다.

장씨는 “1971년 고흥 동강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교직 생활을 시작하며 주변 사람들을 따라 돌을 수집한지 40여년이 지났다”며 “출장 때마다 또는 주말마다 산으로, 바닷가로 돌을 주르러 다니다 보니 온 집안이 수석으로 가득 찼다”고 말했다.

고등학교까지 배구 선수 생활을 했던 그는 지난 2007년 전남고등학교교장을 끝으로 정년 퇴임을 한 뒤 대한배구협회 대학·중·고연맹 경기감독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국 대회에 출장을 나갈 때도 수석 수집은 잊지 않았다.

지난 1988년에는 동호인단체 ‘화정수석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회원 12명이 참여해 매 주말이면 함께 채취에 나서고 있다.

장씨가 모은 수석은 약 400점. 장성, 담양, 해남, 광양,



수석수집가 장재규씨가 자택에서 지난 40여년간 모은 수석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영광 등 전남을 비롯해 경남 남해, 거제, 울산, 멀리서 제주도, 남한강까지 다녀왔다. 그리스, 터키 등 해외에서도 가져온 수석이 다수 보였다. 같이 여행을 간 사람들이 놓고 잡힐 때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결과물이다.

경주에서 가져온 돌은 마치 탐처럼 여러 판들이 층층이 쌓여있다. 멀리서 보면 여러 돌을 쌓은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하나의 돌이라는게 신기하다. 또 제주도에서 가져온 현무암은 한라산처럼 봉우리가 솟아 있고 가운데가 움푹 파여 백록담을 떠올리게 한다.

장씨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남해에서 주워온 바닷가 형상 돌이다. 평평한 돌은 가운데 색깔이 검은색으로 돼 있어 바다를 연상시키고 뒤쪽에는 섬처럼 돌 조각이 튀어나와 있다. 가장 눈에 잘 보이는 TV 밑에 위치시켰다.

그밖에 학이 날개를 핀 무늬가 있는 돌, 거북이 등껍질처럼 둥그런 표면에 규칙적인 틈이 있는 돌, 기암괴석 산 모양처럼 생긴 돌을 볼 수 있었다. 사람 얼굴, 호랑이, 조가지봉도 있었다.

모양이 신기하다고 해서 무척두고 수집한 것들은 아니다. 수석에는 투(투명)·준(주름)·수(빼어남)·질(바탕)·형(모양)·색(색깔)·장(길이)·고(높이)·폭(너비) 등 9가지 요건이 있다.

“수석을 수집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장소입니다. 제주도에서 한라산을 닮은 돌을 가져올 때 공항에서 거부당해 일정을 하루 늦춰 배를 타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는 세월호를 추모하기 위해 안전에서 돌을 가져오기도 했죠. 동호인들끼리는 서로 갔다오지 않은 장소의 수석을 교환하기도 합니다.”

장씨 수석 특징은 나무뿌리와 조화를 이룬 점이다. 지리산 등을 다니며 특이하게 생긴 나무 뿌리를 주워와 돌 모양과 조화시켰다. 작은 학, 솔방울, 모형 꽃을 추가로 달아 한 폭의 풍경화처럼 꾸몄다. 베란다의 장씨의 작업장이었다. 주워온 돌을 일일이 닦고 동백기름을 칠해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나무뿌리도 마음에 드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썰고 깎는 과정을 반복했다. 수석을 잘보이도록 하기 위해 기성 장식장 벽면에는 직접 하얀색 시트지를 붙였다.

장씨는 수석들이 작품으로써 모양새를 갖추고 나니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 기회가 닿는다면 전시회도 열 생각이다.

“집에서 혼자 감상하기 보다는 남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기한 돌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요. 조만간 전시회를 통해 선보일 계획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바로 곁에 수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학정연우서회 세계청소년서예대전 고등부 대상에 김류희양

제35회 세계청소년서예대전 고등부 대상에 김류희(숙조여고 3년·사진)양이 선정됐다. 중등부 대상은 중국 스징위(충칭시 덴장중 2년) 학생이, 초등부는 중국 천위치(사시전초급중학 1년) 학생이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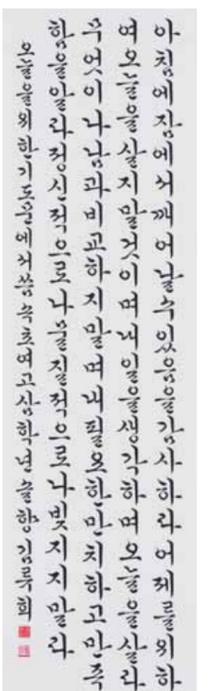
학정서예원 출신들로 구성된 (사)학정연우서회는 ‘세계청소년서예대전’ 입상자를 22일 발표했다. 지난 1982년 시작한 ‘전국서예작품공모전’은 지난 해부터 ‘세계청소년서예대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본, 중국 등 전세계로 대상을 확대했다.

1차와 2차로 나눠 심사를 진행했으며 1차는 중허홍동의 선생이, 2차는 유재 임중현 선생이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올해는 국내 571점, 해외 588점 등 총 1159점이 출품됐다.

고등부 우수상은 중국 정민위에(덴장중 1년), 중등부는 진태양(상인중 3년), 초등부는 일본 고조아이나(고성서도교실 1년), 장다은(동고초 4년) 학생이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은 10월 9일 오전 11시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에서 열리며 수상작 전시는 같은 곳에서 10월 6~12일 진행된다. 문의 062-222-415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박물관 24일 ‘뮤지컬-발레리나가 된 신데렐라’ 공연

국립광주박물관이 24일 오후 4시 교육관 대강당에서 ‘뮤지컬-발레리나가 된 신데렐라’ 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은 발레리나가 된 신데렐라를 주 내용으로, 공연도 보고, 체험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특히 공연과 체험이 끝난 후에는 아이들이 발레리나 복장을 입어보는 이벤트를 마련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신비 엔터테인먼트’가 기획하고 ‘공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했다. 공연 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창단해 예술과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다.

전체 관람가며 무료로 진행된다. 박물관 홈페이지(www.gwangju.museum.go.kr)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문의 062-570-702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희망문화협동조합 ‘시민연극교실’ 2기 참가자 모집

희망문화협동조합(이사장 임준형)이 공연예술 창작에 직접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연극교실’ 연극여행 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시민연극교실’은 전문 연극 공연에 술가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수강 후에는 오는 11월에 서구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제2회 시민연극축제’에 참여하게 된다.

제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한 양정인(연출가)씨가 나선다. 참가자들은 기본적인 연극의 이해부터 연극 제작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배우로 직접 연극 공연에 참여한다.

연극교실은 오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며 접수 마감은 오는 26일까지다. 수강료는 무료다. 문의 010-3615-948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채경남 작 ‘반딧불이의 시간들’

‘독거동락’...‘www.현대미술가회’ 회원전 28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

‘www.현대미술가회’가 28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에서 ‘독거동락’(獨居同樂)을 주제로 회원전을 연다.

‘www.현대미술가회’는 여성 작가 창작 환경을 발전시키고 문화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발족했다. 매년 회원전을 열고 있으며 올해가 14번째다.

전시 참여 작가는 김왕주, 류현자, 박수옥, 백애경, 이선희, 임수영, 정정임, 정참,

조선아, 조수경, 한지희, 채경남 등 12명이다. 전시주제 ‘독거동락’은 회원들이 한여름 작업실에서 작품 활동에 몰두하고 가을을 맞아 모두 모여 즐거운 상황을 빚었다.

김왕주 작가가 출품한 설치작품 ‘독거동락’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구름, 계단, 나무 등을 소재로 삼았다. 구름을 때론 하얗게, 때론 오방색으로 표현한 점이 눈에 띈다.

류현자 작가는 ‘사모곡16-1’에 한문으로 사모곡 전문을 실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다. 또 박수옥 작가를 중점 모를 작품에 등장시키며 아버지를 떠올린 ‘아버지의 동락’을 전시한다.

그밖에 백애경 작가는 꽃을 형상화한 ‘꽃환속으로’를, 이선희 작가는 고양이들 의인화시킨 ‘존재들’을 선보인다. 문의 062-222-8053. 김용희기자 kimyh@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품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엔 1층)

아프리카 스타 조각
양크로르전시회
- 400여점 전시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국민·대·통·합을 위한 **영호남 문화대축제**
2016 YEONGHONAM CULTURAL FESTIVAL

광주천변 특설 행사장(광주공원 앞) **9/30(금) ~ 10/2(일) 3일간**
총장축제 기간중

문화를 통한 교류의 장
어울림을 주제로 한 체험·참여 프로그램
영·호남 특산물 전시 판매

부스 참여업체 모집
영·호남 지역자치단체의 홍보 및 특산물 판매를 위한 부스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선착순 모집 배치)
문의 (062) 220-0555, 010-7174-1257

회합과 상생으로 영·호남의 오작교를 잇다

주최 **광주일보사** **每日新聞社**